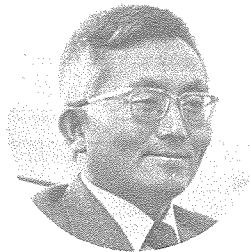


18세기末 技術導入論을 펼친
朴 齊 家

기술導入을 역설
물품標準화와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교수 · 科學史〉

“교묘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나라에는 일류기술자도, 공장도 없게되고 기술은 망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대저 재물이란 샘물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다시 차게 되지만, 쓰지 않고 버려두면 말라 없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비단옷을 입지 않으면 비단짜는 사람이 사라질 것이고, 직조기술은 쇠퇴하게 된다. 그릇이 비뚤어져도 개의치 않고, 아무도 교묘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나라에는 일류 기술자도, 공장도 없게되고, 따라서 기술은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200년전에 朴齊家(1750~1805)가 한말이다.

조선 시대의 유교적 가치관으로는 이런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었다. 박제가는 상업이 발달하여 여러 곳의 물화가 잘 교환되어야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이나 공업의 생산이 활발해야 하며, 여기에 기술의 발달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덜어놓고 절약만을 강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당한 소비가 생산을 장려하며 생산이 활발해야만 기술도 발달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그러나 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유교사회에서는 농업생산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공업의 생산성마저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볼 지경이었다. 공업 생산품이란 흔히 사치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상업에 이르면 그것은 일종의 사회악쯤으로 보아 온 것이 유교사회의 전통이었다.

이런 조건속에서 양반이 지배하던 조선왕조에서 선비(士)를 정점으로 하여, 농부(農), 기술자(工), 상인(商)이 이 순서대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만들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선시대는 양반—중인—상인—천인의 네 계급으로 나누어진 계급사회였다. 여기의 “상인”(常人)이란 “보통사람” 또는 평민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바로 앞에 나온 장사꾼이란 말과는 다르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수학자, 의사, 천문학자, 통역 등 요즈음 말로 전문적 종사자들은 선

비이면서도 제대로 양반대접을 받지 못하고 중인(中人)으로 치부되었다. 앞에 말한 농부, 기술자, 상인이 모두 보통 사람 또는 그 이하의 친인에 속한 것은 물론이다.

박제가의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의 힘을 역설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 것이었다. 18세기말의 대표적 사상가였던 박제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우부승지를 지낸 朴坪의 서자로 태어난 그는 11살에 아버지가 작고한 뒤에는 고생하는 어머니 밑에서 누이 셋과 함께 서울 남산 아래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재주를 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15살부터 그는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 또 그때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들어오는 외국의 새로운 문물에 눈이 떠가고 있었다.

이때 친하게 지낸 청년 가운데에 뒷날 四家로 소문난 글 잘 쓰는 문장가가 나왔는데 朴齊家, 李德懋, 柳得恭, 李晝九가 그들이었다. 이들 네 사람의 공동시집은 뒤에 중국에도 알려질 정도였다.

1778년 그는 처음으로 중국을 여행하게 됐는데 이때 북경에는 이덕무와 동행이었다. 박제가의 대표작 北學議는 바로 이때의 견문을 바탕으로 그의 나이 29살때 쓴 글이다.

그는 그후에도 세 번이나 더 중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런 경험이 더욱 그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었다. 서자 출신이라는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때 정조의 주목을 받아 奎章閣의 檢書官이란 직함을 얻은 일도 있었고, 그후 잠깐 扶餘현감을 지낸 일도 있다.

이처럼 박제가의 인생은 당대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처지에 있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당대의 몇몇 다른 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학문의 태도를 뿌리 내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의 힘을 역설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였다.

북경방문을 토대로 쓴 北學議에는 중국에서 본 교통기관과 건축방법의 발달한 모습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洪大容, 朴趾源이 모두 그의 선배였고 함께 北學을 주장했던 것이다. 좋은 제도와 앞선 기술이 있다면 오랑캐라도 찾아가 배워 오는 것이 옳다고 이들은 淸나라의 문물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북학”이란 용어는 이런 뜻에서 孟子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다.

1644년 이래 중국 본토에서는 明이 망하고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만주족이라면 조선의 선비들 눈에는 女眞으로나 알려진 야만인에 불과했다. 丙子와 丁卯의 양대 胡亂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事大의 예를 행하고는 있지만 그들 보다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는 자부심을 조선의 사대부들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북학론자들은 바로 이런 태도의 근원적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박제가의 北學議는 제목을 통해 명백하게 북학을 주장하고 나선 북학론의 대표작이다. 1778(정조2)년의 북경방문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내편과 외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편에서는 중국에서 본 발달한 교통기관을 소개하고, 또 건축방법의 발달된 모습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한 상업발달의 중요함을 인정하고 외국어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외편에서는 농업기술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의 과거제도를 비롯하여 몇 몇 비판적인 글이 실려 있다.

그는 서양에서는 벽돌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오래 견딜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고, 또 서양에서 사용하는 시멘트는 한번 굳으면 쇠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적어 놓았다. 그는 또 일본에서는 궁궐이나 일반가옥에 모두 같은 크기의 창문을 쓰기 때문에 어느 집에 창문 한짝이 필요하면 시장에서 그걸 사다 끼우면 그만이라면서 모든 물품을 표준화하여 생산할 것을 주장했다. 지

금에서야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산품의 표준화를 그는 이미 200년 전에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박제가 특히 관심을 보인 기술분야는 당연히 농사기술이었다. 그는 모든 농기구에 대해서는 徐光啓의 農政全書를 참고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서광계란 바로 마테오리치 등 서양의 선교사와 협조하여 서양의 과학기술을 중국에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서양 농업기술이 이미 흡수되어 있는 이 책을 통하여 조선의 낙후된 농업기술 근대화를 내다 보고 있었다.

기술의 개발로 농업생산력이 높아져야만 공업도 발달하고, 또 상업활동도 활발해진다고 생각했다. 상인이야말로 사·농·공·상의 四民의 하나로서 나머지 셋을 서로 통하게 해주는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전인구의 10분의 3은 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교통기술의 발달이었는데, 이는 또한 그가 강조한 상업의 발달과 연관된 까닭이었다.

당시의 중국은 서양선교사들의 덕분에 일부 서양기술까지 도입되고 있어서 조선에 비하여 월등한 기술선진국이었다. 그들의 앞선기술을 배워오기 위해 박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책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미 농업기술을 배우는 데 서광계의 <농정 전서>를 권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중국에서 나오고 있던 여러 가지 과학기술서적을 읽히는 방법이 써 있다.

둘째로 그는 표류하여 들어오는 외국의 선원들을 즉시 중국에 되돌려 보내지 말고 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걸 배운 뒤에 송환하자는 특이한 주장도 내 놓았다. 그는 특히 해외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선박의 제조와 항해기술에 관련된 주장이라 하겠다.

기술의 개발로 농업생산력이 높아져야만 공업도 발달하고 상업활동도 활발해진다고 생각했다.

기술도입을 위해 중국에 기술유학생을 파견해야하고, 서양 선교사를 국내에 초빙해 그들에게 기술을 배우는 두 방법을 주장했다.

세째 주장은 기술유학생의 파견이다. 해마다 10명 정도를 선발하여 중국에 파견하여 기술을 배워 돌아와 국내에 보급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담당할 기관을 만들어 기술도입에 성공한 사람을 포창하고 기술보급에 노력한다면 10년 이내에 우리도 기술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단언하고 있다. 몇 10년 뒤 丁若鏞이 그의 經世遺表에서 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위해 利用監을 두자고 주장한 것은 정확히 그의 생각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네째 방식은 좀 이색적이다. 1786년 임금게 건의한 그의 기술도입책에 의하면 중국에 와 있는 서양선교사를 국내에 초빙해 오자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들어와 우리 젊은이를 가르치게 된다면 몇 년 안에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물론 그는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도 과학기술만 가르치게 할 뿐 천주교를 가르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그들이 “몇 10명쯤”들어와 있다 해도 포교를 못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단언했다. “열 가지를 배우고 한 가지만 막으면 된다”고 그는 생각했지만 아마 그것은 너무 단순한 이상론이었을 것이다.

이미 기독교의 위협은 보수세력에게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1800년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기독교의 탄압은 1801년의 辛酉邪獄으로 막을 올렸다. 서양선교사의 초빙까지를 주장했던 박제가 박해를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1801년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되었던 그는 1805년 3월 귀양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귀양생활의 후유증에서 회복하지 못한채 그는 곧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세기 말에 이미 기술도입론을 활발하게 펼쳤던 선각자 박제가의 일생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못하다.